

대자보 훼손, “홍콩 경찰 지지한다”

〈홍콩 시위 지지〉

장보경 기자 jbg9687@knu.ac.kr

우리학교에서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달 21일 서울캠퍼스(서울캠) 노천극장 앞 중앙 대자보 게시판에 붙어 있던 대자보가 훼손됐다. 해당 대자보는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모임(학생모임)’이 게시한 것으로,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학생모임은 ‘홍콩 경찰의 국가 폭력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대자보를 통해 홍콩 민주화 시위의 현황을 알렸다. 이 들은 대자보에서 “홍콩 경찰은 시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지팡이의 역할을 포기하는 행태를 자행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홍콩 시민들은 자유를 힘껏 외치며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도 홍콩과 마찬가지로 국가 폭력에 끔찍한 희생을 당하며 민주주의와 자유를 쟁취했다”며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언급했다.

더불어 “중국과 홍콩 당국, 홍콩 경찰들은 폭력을 멈추고 자신들이 저질렀던 일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며 “험난한 투쟁의 길을 걷고 있는 홍콩 시민들에 연대의 목소리를 높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대자보는 자신이 홍콩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이에 의해 훼손됐다. 대자보에 반대하는 의견을 검은 매직펜으로 덧쓴 것이다. 그는 “나는 홍콩 사람이고 나는 홍콩을 사랑하고 우리나라 중국도 사랑한다”며 “홍콩은 현재 폭력이 있기 때문에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인에게는 한국의 일부부터 잘 관리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글도 썼다.

중앙 대자보 게시판뿐만 아니라 청



청운관 1층 게시판에 붙어 있는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가 훼손되어 있다.

운관 1층 게시판에 붙어 있는 홍콩 시위 관련 대자보에는 반대 의견이 적힌 종이와 포스트잇이 덧붙여져 있었다.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합니다’라는 내용의 글 위에 붙어 있는 종이에는 ‘Stop interfering in China's internal affairs(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 혹은 ‘One China’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캠 총학생회(총학)는 대자보 훼손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총학은 “대자보 훼손은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가로막는 심각한 행위”라며 “타인의 의견 개진을 탄압하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의사표현이 행해져선 안 된다”고 전했다. 또한 향후 대자보 훼손 행위가 반복될 경우 관련 조항에 근거해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선민(언론정보학 2018) 씨는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가진다”며 “대자보를 훼손함으로써 타인의 의견을 억압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유혜리(철학 2018) 씨는 “의견의 옳고 그름을 떠나

서 원칙에 어긋난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자보 훼손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반면 중국인 유학생 A(경영학 2017) 씨는 “홍콩 경찰을 비난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보고 화가 났다”며 “한국 학생들이 진실을 정확히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자보가 훼손된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대자보가 부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그것을 훼손한 행위 자체는 비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화가 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학생들에게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 것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세종대학교 등에서도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 가운데는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25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이용표 청장이 “최근 5개 대학에서 7건의 신고 또는 고소장을 접수했고, 중국인 유학생 5명을 입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크 그룹을 만드는 기능도 추가됐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기능은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았으며 경희톡을 사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학생들은 되려 경희톡이 무엇이냐고 다시 질문했다.

윤다은(응용영어통번역학 2019) 씨는 “KHU 알리미 말하는 것이냐”고 답하며 아예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유진(수학 2019) 씨는 “알긴 알지만 설치를 하지 않았다”며 “같은 수업 듣는 사람끼리 단톡방 만들 어지는 거 아니냐”고만 했다. 최고은(Hospitality경영학 2019) 씨는 “설치는 하였으나 제대로 써본 적이 없다. 배분이수 교양 교수님께서도 클라스를 확인하라는 내용의 알림만 보내는 것으로 딱 한 번만 사용하셨다”며 어플의 존재감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경희톡의 맨 오른쪽 밑을 클릭하면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명단과 연

2019 중앙일보 대학평가 6위 자연과학, 계열별 10위 밖

김창호 기자 k.c_hoxx@knu.ac.kr

위를 기록했고 학생 교육 노력 및 성과 부문에서는 12위를 기록했다.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등 4개 계열 순위를 매기는 계열평가에서는 인문계열에서 220점 만점에 126점으로 10위, 사회계열에서 240점 만점에 152점으로 6위로 모두 작년 대비 1단계씩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공학 계열에서 역시 270점 만점에 163점으로 작년 대비 7점 하락한 9위의 성적을 기록했다. 자연과학 계열에서도 10위 안에 들지 못했다.

기획조정처 학술진흥팀에서는 “지표 실적으로는 아쉬움이 남지만 교육비 지급률, 도서 자료 구매비, 기숙사 수용률 등에 있어서도 전년 대비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말했다. 또 “LINC+사업 선정 이후 지속적인 창업 프로그램 확대, 현장실습 지원 시스템 구축 및 기업 확대를 통한 과연 학생 확대, 지속적인 교원초빙과 유학생 확대 등에 따른 실적으로 판단된다”고 얘기했다.

평가는 교수 연구 부문의 10개 지표가 종합 100점, 교육 여건 부문의 12개 지표가 종합 100점, 학생 교육 노력 및 성과 부문의 6개 지표가 종합 70점, 평판도 부문의 5개 지표가 종합 30점으로 구성됐다. 총 4개 부문에 걸쳐 33개 지표, 300점 만점으로 이뤄졌다.

우리학교는 교육 여건 부문에선 55.2점으로 고려대와 공동 6위, 평판도 부문에선 21.7점으로 서강대와 공동 7위의 점수를 받았다. 이는 작년 대비 순위가 2단계 상승한 결과이다. 교수 연구 부문에서는 58.4점으로 9

관련기사 6면



출시 한 달 넘은 경희톡 설치율 20%, ‘기능 부족’ 지적 잇따라

정유나 기자 yunaight@knu.ac.kr

정보처에서 “쌍방향 소통 기능”을 내세우며 경희톡을 공개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정보처는 지난 9월 기준 KHU 알리미에서 발전된 형태로 개개인에 맞는 피드가 구성돼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경희톡을 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경희톡의 기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홍보도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희톡 설치율은 20.1%로 저조한 편이다.

경희톡은 기존의 KHU 알리미 기능에 수강정보와 자료를 연동해 수업 구성원 간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끼리 조별 과제 등을 수행할 때 연락처를 주고받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보였다. 그 외에도 학생끼리 자유롭게 위

락처가 뜬다. 이름 옆에 초록색 점이 있으면 경희톡을 설치한 것이고, 회색 점이 있으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설치를 한 학생보다 설치를 하지 않은 학생이 훨씬 더 많았다.

또한 경희톡의 ‘연락처 연동’ 기능은 사용자가 연락처 공개 허용을 해야 공개가 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들은 개인정보 노출이나 신상정보 공개에 두려움을 느껴 연락처 공개 비허용으로 해놓는 경우가 많았다. 최 씨는 “연락처 연동 비허용으로 해놓았다. 잘 모르는 사람이 나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무서웠다”고 말했다. ‘연락처 연동’ 기능은 ‘독강’ 혹은 ‘조별과제’ 시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정보처의 기대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

경희톡(‘경희talk’)에 걸맞는 기능이 없는 것도 지적됐다. 연락처 연동

이 되지 않는다면, 어플 내에서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한 기능이 있어야 하지 만 경희톡 어플 내엔 그러한 기능이 없다. 최은(Hospitality경영학 2019) 씨는 “조별과제 때 실제로 사용해본 적이 없다”며 “경희톡이라고 해서 카카오톡 같은 기능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당황했다”고 말했다.

그룹을 만들어서 게시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거나 공감을 누를 수는 있지만, 이러한 ‘피드형 타임라인’은 끊임 없이 의견을 주고받아야 하는 조별과제의 경우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학생들은 경희톡이 있음에도 이전과 별다를 바 없이 번호를 물어보고 ‘단톡방’을 만들어야 했다.

이대호(소프트웨어융합학) 교수는 “경희톡 기능을 교수가 직접 안내하고 사용할 수 있으나, 기존 스마트폰 메신저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

기 때문에 사용률이 낮을 것”이라며 경희톡 기능 일부를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인포21과 알라딘 등에서 이메일 전송 및 SMS 전송 기능의 추가 및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교수는 “아직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직접적인 사용자인 교수 및 학생들의 관점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사용자들의 요구 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대폭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캠퍼스 정보기획팀 최정인 과장은 경희톡 설치율이 기대보다 낮아서 더욱 활발히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최 과장은 “조만간 인포21로그인 화면에 경희톡 홍보 팝업창을 띠워 설치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능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사용자들의 요구에 맞춰 추가할 것이라고 답했다.